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2023 AUTUMN

Medical Essay

폐암의 수술적 치료
비알콜성 지방간에 관하여
살 빼기 최후 수단 비만대사수술, 부끄러워 할 일 아니다
내 심장파 함께 달리기



Care & Love



허정호 교수·심장내과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2023 AUTUMN

발행인 오경승
발행일 2023년 9월
편집인 옥철호
발행처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대외홍보협력실
부산광역시 서구 감천로(장기려로) 262
T. 051-990-3700~2
www.kosinmed.or.kr
개원일 1951. 6. 21
디자인·인쇄 현대출판인쇄사(T. 051-464-5667)

삶을 풍요롭게 하는 유용한 읽을거리와 건강정보를 담은 고신대학교복음병원보는 한정된 부수만 발간하오니 주위 분들과 함께 읽으시길 바라며, 홈페이지(www.kosinmed.or.kr)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원보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게재된 글과 사진은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책에 관한 내용 중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대외협력실(051-990-3700~2)로 연락해 주십시오.

Contents

Kosin Spirit

- 04 존재 이유 김영대 목사·원목실장
- 06 나는, 너는 정말 행복하다! 구원 목사·김해 동서남북 교회
- 08 남아공 의료선교를 돌아보며 김영준 강도사·원목실

Medical Essay

- 12 폐암의 수술적 치료 고택용 교수·흉부외과
- 14 비알콜성 지방간에 관하여 박현준교수·간내과
- 16 살 빼기 최후 수단 비만대사수술, 부끄러워 할 일 아니다 서경원교수·위장관외과
- 18 내 심장과 함께 달리기 한형래 연구원·부산광역시체육회 스포츠과학센터

Culture & Life

- 20 구름이 문을 열다, 영남알프스 운문산 노경만 산·여행작가
- 24 너도, 나도 생명 김희자·수필가
- 27 원목실 추천도서

Kosin Inside

- 28 몽골 해외의사 연수기
- 30 고신's 스토리
- 38 포커스뷰

Donation

- 44 진료시간표
- 49 KOSin 사랑in

존재 이유

 김영대 목사 • 원목실장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지 알기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복음병원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수술이라도 받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식사를 하다가 김구상 교수님께서 ‘진료했던 환우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21세 젊은 여성에게 큰 덩어리가 발견되었는데, 암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급하게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병원장님께서 병원에서 수술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였고, 원목실에서 책임지고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사는 동안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고름이 피부로 흘러 나오고, 고통으로 침침처럼 울부짖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21세인 그 자매가 한국에 와서 수술을 받게 되는 그 기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남아공 ‘두드림(Do Dream)’ 팀의 사역은 오늘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향해 다시 뛰기를 원합니다. 자매가 수술 받고, 다시 남아공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 팀은 계속해서 존재하기를 소망합니다.” 남아공에서 마지막 날 밤, 팀원들에게 남겨진 사역을 광고했습니다.

남아공에서 돌아온 다음 날,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병원에 모시기로 한 21살 유방암 환자를 위해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그 환자가 인간으로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사역한 간호대 1학

년 장다연 자매의 특이였습니다. 가슴이 몽클해졌습니다. 그녀는 남아공에 가기 전날까지 아르바이트와 뮤지컬 연습을 했던 자매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남아공에 있는 환우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고귀한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완치의 개념이 아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수술을 받는 유방암 환우를 위해 기부합니다. 성적 장학금을 조금 받아 약소한 금액을 후원합니다. 다음에 더 받으면 또 기부하겠습니다.” 간호대 1학년 김지오 자매의 특이였습니다.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가슴에 몽클한 감정을 느꼈다는 지오 자매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거금의 후원금을 보내왔습니다. 그 후 기도가 필요한 남아공의 환우를 위해 금요일도 회에 출석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선교 마지막 밤, 유방암 친구의 이야기를 들은 후 계속 생각이 나고 마음이 많이 쓰였습니다. 21살 친구가 고통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완치가 되면 좋겠지만, 아니더라도 살아 있는 동안 인간다운 삶을 살고, 하루하루 행복할 수 있도록 제가 느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유방암에 걸린 자매에게 알게 해주고 싶습니다.” 장학금으로 받은 돈을 부모님과 상의해서 기부한 간호대 1학년 하선미 자매의 편지 내용입니다.

고신대학교와 복음병원에 대한 많은 의견들을 듣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 사실입니다. 남아공 선교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이유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CORAM DEO’ 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동안 이 땅의 상황과 평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 선교 팀의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고, 둘 째,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남아공으로 떠나는 날, 태풍 ‘카눈’으로 항공편이 취소되어 혼란이 생길 수 있었지만,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저희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다음 비행기를 기다리는 2박3일 동안, 양평에 위치한 ‘하이 패밀리’ 송길원 목사의 도움을 받았으며,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팀원들이 하나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선교에 필요한 충분한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역이 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와 케이프 타운에서 약속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다 지키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태풍으로 사라진 3일을 만회하기 위해 거의 매일 비행기로 이동해야만 했고 1,341건의 진료를 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케이프 타운에서는 처음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진료로 많은 분들의 마음 속에 복음을 새길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부산까지 버스로 이동했는데, 늦은 저녁식사 이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렸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라고 첫 소개를 하셨던 분이, 가장 적극적으로 찬양을 하셨습니다. 바쁜 일정으로 제대로 된 예배와 기도를 가지지 못했음에도 여정 전체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목상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의 감격적인 만남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행 23:11). 정적이 도는 한 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찾아오셨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언하였듯이 로마에서도 같은 사역을 하게 될 것이란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우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행 23:10).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을 아무도 긍정하거나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반대한 여정이었습니다. 바울의 고집이었고, 결과는 유대인들에게 몸이 찢겨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경험했으며, 실패와 어리석은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바울을 위로하였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남아공을 다녀온 직후, 2024년 신규 간호사 면접이 있었습니다. 지원자들이 남아공 사역을 언급하면서 자신들도 해외에서 쓰임을 받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되게 하심을 경험합니다. 더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기를 다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신대학교와 복음병원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우리의 존재 목적과 존재 이유로 삼습니다. 고신대학교와 복음병원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CORAM DEO 입니다. ✝

나는, 너는 정말 행복하다!

(신명기 33:29)

 구원 목사 · 김해 동서남북교회 부목사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아들에게 부유함을 자랑하고 싶었던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아들에게 자신들이 얼마나 부자인지 보여주고 싶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 자신의 거대한 저택을 떠나 차를 타고 자신의 어린 시절 친구가 사는 작은 시골 농장을 갔습니다. 친구의 집은 가난했습니다. 피죄죄한 개 네 마리가 있고, 집 뒤편에 모기가 날아다니는 작은 강이 있는 작고 허름한 나무집이었습니다. TV도 없고 멋진 가구나 카펫도 없었습니다. 불거리나 놀거리라고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전자기기가 없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친구의 가정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이틀 밤을 보내고 돌아온 아버지는 자신이 보여주고자 한 바를 아들이 깨달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지난 이틀간 어땠니?” 아들 답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좋았어요.” 아버지는 흐뭇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들아,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보았니? 너는 무엇을 배웠니?”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우리 집에는 강아지가 한 마리밖에 없는데, 거기에는 네 마리나 있었어요. 우리 집 뒷마당에는 수영장이 한 개밖에 없는데, 그 집 뒤에는 끝없이 이어진 멋진 강이 있었어요. 그곳에 물고기와 새, 푸른 녹음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는 전등이 있는데, 그곳에는 온 하늘이 별이었어요. 우리는 저녁에 각자 TV를 보기에 바쁘는데,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재미있게 놀았어요.”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예화를 통해 우리는 ‘행복’이란 환경과 소유에 근거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가졌냐’가 나를 결코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내게 좋은 일만 있고, 아픔이나 슬픔 또는 고통이 없다고 무조건 행복한 게 아닙니다. 행복의 조건과 핵심은 ‘누구와 함께 하는가’입니다.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유언입니다. 그 유언의 끝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정말 행복한 자다” 그들은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받은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40년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어떻게 진정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시니 이스라엘의 430년 이집트 노예 인생이 끝났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당시 최고의 난공불락의 성 예리고를 정복하였습니다. 주변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보면 떨었고,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지나온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였기에 이스라엘은 외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며 자기 자신에 대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은 나 같은 이가 어디 있나?’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는 정말 행복하다.” 말씀해줍니다.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단적인 예로 신학대학원 입학 이후 저는 제가 익숙한 지역에서 사역해 보지 못했습니다. 창원, 대구, 부산 등등... 갈 때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장소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원을 졸업한 후 전도사에서 강도사,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쁜 아내를 만나 결혼도 하여 슬하에 2명의 아들도 두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곳마다 세상에서는 도무지 성립이 안 되는 귀중한 동역자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늘 함께하셨기에 제 삶의 지난 나날들은 만민의 복이 흘러넘칩니다. 그렇기에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참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니까요. 사람이 주는 행복은 언젠가 이별이라는 아픔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동행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행복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임마누엘(Immanuel/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은혜를 누리는 ‘지금(present)’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present)’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서로를 향해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해 말할 수 있습니다. 외칠 수 있습니다. “너는 정말 행복하다!” “나는 정말 행복하다!” “우리는 정말 행복하다!”

무더운 여름의 끝자락에서 나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23년의 하반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남아공 의료선교를 돌아보며〉 예상하지 못한 은혜

 김영준 강도사·원목실



저는 지난 8월 10일부터 19일까지 '두드림'이라는 팀명으로 남아공 의료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의료 선교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는 예상하지 못한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과정 속에서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은 합류 시점부터입니다.

신학을 공부했지만 선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저는 첫 합류 제안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장기간 사역지를 비우는 것에 부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영대 원목실장님을 비롯한 원목실의 배려와 조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결국 제 염려와 두려움을 기대와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셨고, 팀에 합류하여 선교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의료선교를 준비했기에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고 8월 9일, 마지막 전체모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한 가지 문제도 함께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건 바로 태풍 카눈이었습니다.

태풍은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중국 발 비행기는 취소되었고, 다음 비행기는 3일 뒤인 13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팀은 세 가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중간에 비어버린 3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긴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많은 부분을 희생했기 때문에 그냥 보낼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남아공 일정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8일의 일정이 5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역의 축소는 불가피했고, 모든 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세 번째 문제가 가장 시급했는데, 개인적인 이유와 방법으로 예매한 한 팀원의 비행기 표도 취소가 되었다는 문제입니다. 이 표는 취소되었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직접 알아보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최악의 경우 이번 선교에 합류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통해서 예상하지 못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한 교수님의 제안에서부터 은혜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김에 2박 3일 동안 국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충분한 교제와 휴식을 통해 8일에서 5일로 줄어든 의료사역을 미리 준비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모두가 동의했고 이리저리 장소와 시간을 조율하던 중, 양평에 '하이 패밀리'라는 단체를 운영하고 '청란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송길원 목사님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의료선교 팀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말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목사님은 실제로 숙식과 프로그램까지 준비해주셨습니다. 모든 팀원은 이 2박 3일의 프로그램과 청란교회의 섬김을 통해서 팀이 하나가 될 수 있었고, 그 섬김과 사랑을 남아공에 갚을 수 있었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의료진들은 약속한 진료를 포기하지 않고 모두 수행하고 싶다는 의견을 현지에 전달했고, 이로 인해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 비행기를 타는 강행군을 경험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사역지로 출발했고, 저녁 늦게 숙소로 돌아와 정리하는 고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기쁨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동 중에 함께 부르던 찬양은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마음을 품게 했고, 밤에 숙소에서 모여 나누는 간증과 찬양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사역지에서의 고된 진료는 너무 감사해하며 환대해주는 현지인들과 한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기쁨과

보람이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에도 우리 팀은 1300여건의 진료를 볼 수 있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신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21살의 젊은 현지인이 찾아왔는데, 육안으로 보아도 진행이 많이 된, 암이 의심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급하게 수술이 필요하여 현지 병원을 추천했지만 환경을 보니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진료를 보셨던 교수님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셨고, 한 젊은 영혼을 위한 공홀의 마음을 팀에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팀은 이 분의 치료를 우리 복음병원에서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가 마무리 된 이후, 팀원이었던 간호대 학생들이 원목실을 찾아왔습니다. 자기들의 또래인 그 분의 치료를 위해 써 달라며 아르바이트 비용과 장학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학생이 감당하기엔 큰 금액이라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말하며 두고 갔습니다. 하나님은 일면식도 없는 한 영혼을 공홀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앞으로의 과정 속에서 반드시 도와주시리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은혜였습니다.



세 번째 우리 팀이 처한 문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한 선생님의 비행기 표를 도저히 구할 수 없었던 우리는 무모해 보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분만 표를 구하기 위해 인천 공항으로 일단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결항된 비행기는 수십 편에 달했고 대체편은 적었습니다. 홍콩을 거쳐 남아공으로 가는 비행기를 기적적으로 발견했지만, 남은 좌석은 2개였습니다. 그 좌석을 바라보는 사람은 무려 30여명이었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비행기 좌석이 2개라는 것에 소망을 품었습니다. 2개 중 한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자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선생님은 그날 비행기를 타고 먼저

남아공으로 넘어가 우리 팀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누가 예상할 수 있었습니까?

이 모든 문제를 은혜로 바꾸신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는 고된 일정과 피로에도 불구하고 큰 불평이나 문제없이 선교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와도 믿음과 확신 안에서 거할 수 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문제는 반드시 예상하지 못한 은혜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인천에서 돌아오는 버스에서 우리는 “은혜”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행군에도 불구하고 2-3시간 동안 찬양을 불렀습니다. 팀원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도 계셨지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노래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은혜 앞에서 경배와 찬양 외에는 반응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남아공 의료선교는 은혜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남아공 의료선교 팀의 이름은 ‘두드림’입니다. 남아공을 두드리고, 하나님의 꿈을 수행하는 ‘Do-Dream’



이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두드리셨습니다. 걱정과 염려 중에 있는 우리를 두드리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남아공에서만 하나님의 꿈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병원에서, 삶의 현장에서도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두드림’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남아공에서도 신실하셨지만, 복음병원에서도 신실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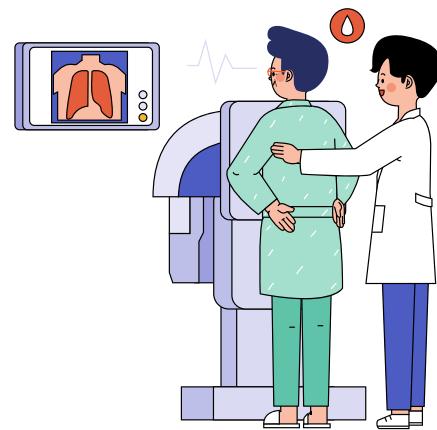


마태복음 6장 33절-34절

- 33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 34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폐암의 수술적 치료

 **고택용** 교수 · 흉부외과



최근 들어 흉부 CT가 건강검진에 포함되면서 폐의 종양으로 진료를 받는 환자가 늘고 있다. 폐 뿐 아니라 어느 장기에도 종양이 생기면 이것이 암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암 여부와 그 성상에 따라 치료의 과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CT, PET-CT, 암표지자 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지만 조직학적 검사가 필수적이다. 폐종양에서의 조직학적 검사는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조직학적 검사

CT 혹은 초음파 가이드하 비늘생검이 있다. 이 방법은 폐종양이 폐의 바깥쪽, 말초부위에 있어야 하며 종양의 크기가 너무 작으면 시행하기가 어렵다. 폐는 공기와 피로 가득 찬 풍선과 같아서 자칫 폐가 들어있는 ‘흉강’에 폐에서 나온 피나 공기로 차게 되는 혈, ‘기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요한다.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은 20~30% 정도로 보고되고 있으며, 양이 많을 경우 폐쇄식 흉관삽관술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종양의 위치와 크기가 시술 결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폐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종양의 경우에는 기관지 내시경하 생검을 시행한다. 기관지 내로 내시경을 진입시키고 초음파를 작동하여 종양의 위치를 파악한다. 그 후 내시경의 워킹채널로 조직획득 도구를 삽입하여 종양의 조직을 일부 획득하는 검사이다. 당연히 종양이 기관지와 가깝게 위치하여야 검사가 가능하다.

수술적 방법

상기 검사들로 접근이 어려운 종양의 경우 대부분 수술적 방법을 택하게 된다. 수술은 흉강경 수술, 로봇 수술 등으로 시도될 수 있으며 간혹 개흉술을 요하기도 한다. 폐수술을 위해서는 수술하는 쪽에 폐의 공기를 빼는 특수한 마취가 필요하다. 폐가 팽팽하게 부풀어 있으면 종양을 탐지하기도 어렵고, 시야에도 보이지 않으며 절제할 부피도 커져 수술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수술하는 동안에는 수술하지 않는 폐만 환기(일측 폐환기)를 하기 때문에 수술이 종료되면 수술하는 폐에도 공기를 넣어 환기한다.

폐절제술은 크게 해부학적 절제술과 비해부학적 절제술로 구분이 되며, 해부학적 절제술에는 전폐절제술·폐엽절제술·분절절제술이 포함되고, 비해부학적 절제술에는 혈관과 기관지 박리가 필요 없는 썬지절제술이 포함된다.

수술 전에 조직학적 확진이 된 폐암의 경우에는 바로 근치적 치료인 해부학적 절제술 및 종격동 임파절 청소술을 시행하게 되고, 그 크기와 위치에 따라 세부 수술을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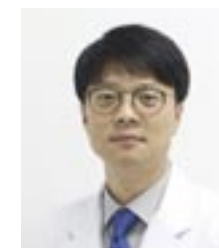
하지만 조직학적 확진이 되지 않은 폐종양의 경우 썬지절제술을 먼저 시행한 후 수술실에서 동결절편검사라는 조직검사를 하게 되고 이 결과가 양성, 즉 암이 아니라면 그것으로 수술은 종료된다. 폐암으로 판정이 난다면 이미 종양은 몸에서 적출되고 없지만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마진을 확보하기 위해 해부학적 절제술로 수술을 진행한다. 임파절 청소술도 시행을 하게 된다.

폐암 수술은 심장에서 바로 기원하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혈관중 하나인 폐동맥과 폐정맥을 매우 조심스럽게 박리하여 해당 구역으로 가는 가지를 절제하는 고난위도 수술이다. 사람마다 해부학적 구조 역시 조금씩 달라 수술 자체가 매우 신중히 진행된다. 폐혈관은 그 직경에 비해 벽이 매우 얇기 때문에 파열이 쉽고 파열시 대량 출혈이 발생하므로 상당한 집중도와 기술을 요한다. 우리나라는 결핵이 많은 나라로 폐 유착이 있는 경우가 많아 수술의 난이도가 더욱 높다.

수술후 회복

힘든 수술을 안전히 잘 마쳐도 회복은 또 다른 문제이다. 보통 전신마취를 하면 인공호흡기를 부착을 하는데 이때의 압력으로 인해 폐는 손상을 받는다. 이 때문에 전신마취 자체가 폐합병증의 위험성을 높인데, 폐수술은 폐를 이리저리 조작하고 절제하기 때문에 더 위험도가 높다. 수술 후 공기를 다시 넣을 때 너무 많은 공기를 넣으면 폐가 오히려 손상을 받아 장기적으로는 불리하므로 체중당 일정량의 공기를 주입하여 폐를 편다. 일부 폐는 찢어져 있는 상태인 무기폐가 발생하는데, 수술 후 환자가 심호흡, 기침, 조기 보행을 하여 이를 퍼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퍼내지 못하면 가래, 절제면의 피 등이 염증을 일으키고 감염으로 진행되어 폐렴이 된다. 폐수술 후 폐렴은 매우 높은 사망률을 가진다.

폐종양은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으므로 꾸준한 검진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종양이 확인된다면 호흡기내과에 내원하여 검사 프로토콜을 따르는 것이 좋다. 이후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되면 흉부외과에 수술이 의뢰되어 수술을 진행하게 된다.



고택용 교수 | 흉부외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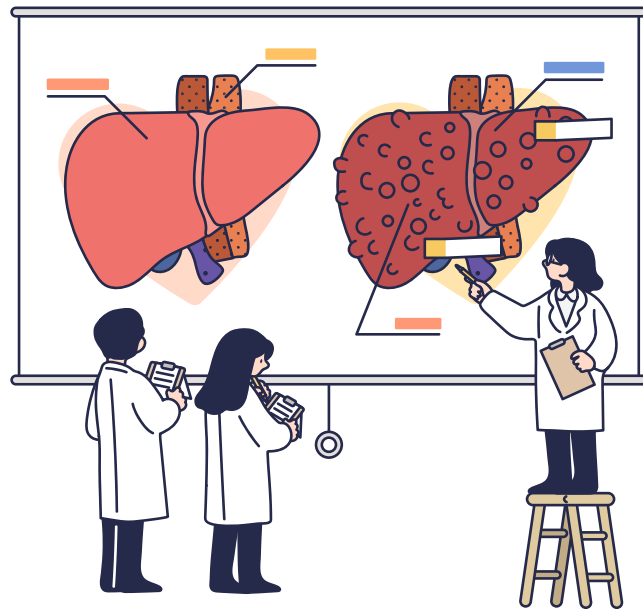
전문진료분야

폐암, 식도암, 종격동 종양, 흉부외상, 일반 흉부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외래
오후			외래	외래	

비알콜성 지방간에 관하여

 박현준 교수 · 간내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이란 유의한 음주, 약물, 다른 원인에 의한 간질환이 없으면서 영상학적, 조직학적 검사에서 간 내에 지방침착의 소견을 보이는 질환을 말한다. 여기서 유의한 음주란, 남자는 주당 약 210g 이상(소주 3병), 여자는 주당 약 140g 이상(소주 2병) 정도를 일컫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유병률은 약 30% 정도로 알려져 있다. 1990년대에 비해 2010년대에 유병률이 더욱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으며, 소아청소년에서도 과거에 비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도 안심할 수는 없다. 단순 지방간에서 약 20% 정도는 지방간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지방간염 환자들 중 20% 정도는 간경화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하다. 특히, 단순 지방간에서도 간암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와 주기적인 초음파 검사 등이 필요하다.

정상체중 지방간질환

상대적으로 정상체중, 일명 마른 지방간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 환자 중 약 1/3은 정상체중 지방간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근육량이 적은 경우 발생위험이 높다.

정상체중 지방간질환을 일으키기 쉬운 음식에는 칼로리가 높은 음식, 튀긴 음식들이 있다. 우리나라는 탄수화물 섭취량이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도 좋지 않다. 무엇보다, 내가 하루 동안 섭취하는 칼로리보다 소모하는 칼로리가 적으면 지방간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 활동이 적은 것, 식사 후 바로 잠드는 것, 야식을 먹는 것 등 간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습관들은 바로 잡는 것이 좋다.

치료방법

치료방법은 크게 운동, 식이습관조절, 체중감량을 위한 생활습관교정, 약물치료, 수술이 있다. 현재까지 지방간을 호전시키는 동시에 예후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것은 운동과 식이습관조절을 하면서 체중감량을 하는 것이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에 대한 여러 가지 약물치료가 연구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체중감량만큼 좋은 효과를 보이는 약물은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현재 세계적으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긍정적인 중간결과를 보고하는 약물들이 있어서 향후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비만이 심한 경우 비만대사수술을 고려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특정한 경우 급여인정이 되고 있다. 하지만 수술에 대한 위험과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임상시험 중인 약물들이 좋은 결과를 보이고 부작용 측면에서도 안정성을 보여준다면, 많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생활치료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생활치료에서 중요한 부분만 알려드리자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이 있거나 예방을 원하는 경우, 매 식사에서 밥 한 숟갈 정도를 줄여야 한다. 운동은 원칙적으로 유산소와 근력운동을 병행하되 주3회, 30분에서 한 시간 정도 옷에 땀이 살짝 날 정도의 강도로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체중감량이 가장 중요하다. 조금 덜 먹고, 조금 더 활동하는 것. 그것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 생활치료의 핵심이다. ✚



박현준 교수 | 간내과
전문진료분야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암, 간부전, 간이식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클리닉	외래			외래
오후		클리닉		외래	

살 빼기 최후 수단 비만대사수술, 부끄러워할 일 아니다

 서경원 교수 · 위장관외과



40세 A 씨는 15년 이상 130kg의 몸으로 직장도 없이 부모님의 걱정만 끼치고 살아왔다. 그의 인생여정을 잘 모르지만, 입원·수술 과정에서 간호사 및 원무과 직원 등 다수와 여러 번 트러블이 있었던 것으로 봐서 평탄하지 않았던 것 같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그의 눈빛은 비장했고, 수술 후에는 생활습관을 치열하게 고쳐 나갔다. 그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현재, 40kg을 감량한 그는 당뇨약 등 먹던 약 대부분을 중단했고 직장도 구했다. 그리고 필자에게 외래 진료를 받으러 오는 날이면 아주 밝은 표정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두 번 외친다.

현대의 미적 기준에 맞추기 위해선

현대인의 고민 중 하나는 ‘어떻게 하면 살을 빼서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느냐’일 것이다. ‘뚱뚱하다’는 말은 다분히 주관적인 표현이다. 의사들이 정의하는 ‘체질량지수’가 30이 넘는 고도비만인 사람의 절반은 자신이 날씬하다고 생각하고, 체질량지수 30 미만인 사람의 절반은 오히려 자신이 뚱뚱하다고 여긴다고 한다.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 살을 빼고 싶다고 말을 해보라. 적게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살을 뺄 수 있다고 하지만, 이를 제대로 실천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맛있는 음식이 도처에 널려 있고, 오늘 저녁도 맛집을 가자는 친구들이 줄을 서 있다.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주범

2006년 개봉된 영화 ‘미녀는 괴로워’를 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포스터를 보고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노래를 아주 잘하지만 뚱뚱한 외모 때문에 대역가수를 하는 주인공이 살 빼는 수술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내용이다(이 영화에서의 수술이 필자가 하는 비만대사수술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뚱뚱하면 사회적으로 좋은 직장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기 어렵다는 현실을 풍자한 영화였다. 실제로 필자에게 수술을 받기로 결심한 분들의 상당수는 외모에 관심이 많은 30~40대 여성이다.

그러나 비만의 더 큰 문제는 당뇨, 고혈압, 지방간, 수면무호흡증과 같이 비만으로 생기는 합병증들이다. 이는 외모의 문제를 넘어 질병이며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다. 당뇨로 인해 약을 먹고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며, 코를 고느라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해 낮에 계속 졸리고 일을 잘 못한다고 혼나기 일쑤다. 또 혈압 약을 먹어야 하고, 콩팥(신장)기능이 망가지면 혈액투석의 두려움이 덮친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의사선생님에게 물어보지만 대답은 적게 먹고, 운동해서 살을 빼라고만 한다. 물에 빠진 사람의 손을 잡아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오라고만 하는 것이다.

준비된 의사를 찾아서

비만대사수술은 수만 가지의 다이어트를 하고도 실패한 분들이 거의 마지막에 찾는 곳이다. 살 빼는 일이 얼마나 힘들면 수술까지 해야 하느냐고 가족들은 반대하지만, 당사자의 절박함을 100% 이해하기는 본인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역사적으로 외과 의사는 환자가 필요한 곳에서 직접 살을 맞대고 일을 해왔다. 더 이상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거니와 안전한 수술을 위해 잘 준비된 의사를 찾아 물에서 건져달라고 손을 내밀어 보라. 그리고 수술을 이미 받은 선배들의 경험을 듣고 고민을 털어놔 보자. 길은 보이게 된다. 

비만대사수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로 확인하세요



서경원 교수 | 위장관내과
전문진료분야
복강경 위장관 수술(위암, 위식도역류질환), 대사비만수술, 탈장수술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외래	외래		
오후		외래			

내 심장과 함께 달리기



한형래 연구원(스포츠의학 박사)
부산광역시체육회 스포츠과학센터



“내 속에 있는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에게 내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이 두려워요.”
“주위에 사람은 많지만 항상 외로움을 느껴요.”
“한참 이야기를 하고 나도 마음 한구석이 공허해요.”
“바쁘게 사는데 의미가 없고 심심해요.”

외로움과 공허함. 오만과 편견. 무관심과 무감동이 우리를 찾아온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 나이 든 사람들의 특징인 고립감과 무력감을 요즘에는 젊은 청년들이 느끼고 산다. 공동체 생활에 익숙하지 않고, 주위로부터 도움을 주고받지 않는 나 홀로 문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기계적으로 움직이며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 감정의 교류는 없다. 그리고 신체는 움직임이 적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로 가득 찼지만 심장은 즐겁게 뛰지 않고 있다. 우리의 몸은 감정 없는 육체가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닐까.

지방을 축적시키는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의 뇌는 세포를 활동하게 하고자 한다. 거기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친 뇌세포의 부담이 다양한 감정에 반영되는 것이 스트레스라는 느낌이다.

불안, 초조, 긴장, 우울. 이것들에 위협을 느낀 뇌는 비상 체제로 들어간다. 중요하지 않은 조직과 기관의 인슐린 수용체를 차단하고, 스트레스 대응에 필요한 조직, 즉 뇌에 포도당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한다. 그리고 소모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여분의 연료는 복부 지방의 형태로 배에 축적해놓는다.

스트레스 상황을 겪은 뒤에 우리 몸은 포도당을 간절히 원하게 되고, 설탕과 지방은 고스란히 연료로 전환되거나 지방으로 축적된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고 신체가 균형을 회복할 틈이 없으면 배에 점점 지방이 쌓이게 된다. 그리고 이 지방은 종종 심장으로 올라가 동맥경화를 일으킨다. 결국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이다.

또한 뇌세포는 공급되는 한정된 연료로 다양한 정신 활동을 해야 한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응하는데 모든 연료를 소모하면, 학습을 하는 사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재미있게도 아픈 만큼 성장한다는 것은 과학적인 이야기다. 적당량의 스트레스는 오히려 신체와 정신이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 즉 회복탄력성을 강화시켜준다. 뇌세포가 손상되면 일단 찢어졌다가 원래보다 더 단단하게 복구된다. 그리고 이후에 닥치는 어려움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워준다. ‘스트레스’라는 일종의 예방접종을 맞은 것과 비슷한 효과다. 미국의 신경심리학자 브루스 매큐언은 말했다. “우리의 정신은 위협적 상황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스트레스 대응을 촉발할 만큼 강하다.”

상상만으로도 격분할 수 있지만, 바꾸어 말하면 그런 상황에서 달려 나와 도망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정신이 신체에 영향을 주듯이 신체의 움직임으로 정신 상태를 바꿀 수도 있다. 움직이는 동물은 움직여야 성장할 수 있다. 식물처럼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신체는 점점 퇴행한다. 뇌의 입장에서는 신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뉘가 배울 필요를 전혀 못 느낀다.

우리의 몸은 수만 년 전부터 음식을 찾기 위해 움직이도록 진화되어왔다. 새로운 세포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혈관이 필요하고, 연료의 원천이 되는 음식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기억을 저장하고 사고하는 학습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포도당의 수치를 조절하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가 뇌세포의 학습 능력에 관여하도록 진화되었다.

그리고 혈관세포 성장인자, 신경세포 성장인자의 분비로 신경세포는 재생과 성장을 해 더욱 강하게 연결된다.

이 모든 것이 내 심장을 뛰게 하는 운동으로 강화된다.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당신. 외롭고 공허한 느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장을 두근두근 뛰게 해야 한다. 마음을 열어 충분히 내 감정에 공감해줄 친구와 소통해야 한다. 그리고 내 심장박동수를 올리는 달리기 필요하다. 다시 말해 ‘내 심장과 함께 달리기’가 필요하다. 

구름이 문을 열다. 영남알프스 운문산

 노경만 산·여행작가



운문(雲門)산은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과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에 걸쳐있는 산이다. 여러 문서에는 해발 1,195m로 표기되어 있기도 하지만 정상석에는 1,188m로 적혀있다.

낙동정맥을 따라 오랫동안 걸어온 산줄기는 고현산에 다다라 마침내 영남알프스를 만난다. 유럽의 알프스를 닮았다는 데서 비롯된 영남알프스는 가지산에 이르러서 능동산-천황산-재약산과 간월산-신불산-영축산 방향으로 줄기를 만들어 낙동정맥을 이어가고, 다른 한줄기는 백운산을 스쳐 운문산으로 가파르게 올라온다. 그리고 역산과 구만산을 향하여 더욱 거칠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다. 하여 유독 임진왜란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품은 산이다.

운문산은 평원과 역새가 넘실대는 천황산, 재약산, 간월산, 신불산 등과는 아주 다른 산세를 품은 산이다. 바위가 많고 가파르고 거칠고, 해서 제법 험하다고 할 만하다.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 그대로, 혹은 원시(元始)를 닮은 길을 걸을 수 있는 손에 꼽을 만큼 드문 산일

지도 모른다.

폭염이 계속되는 요즈음이라면 무엇보다 물을 충분히 준비하여야 한다. 산행 중 계속 계곡을 따라 걸으므로 물갈이를 하지 않는다면 계곡물을 마셔도 된다. 나의 산행은 밀양티미널에서 9시35분에 출발하는 얼음골행 버스를 타고 시작된다.

구름의 문을 열고

〈원서〉정류장에서 버스를 내려 석골마을로 길을 잡는다. 입추도 처서도 지났지만 폭염은 무엇에 그리 미련이 남았는지 여전히 역수로 내리고 있다. 장맛비처럼 지독하게 내리고 있다. 그나마 위안이 되어주는 동천을 흐르는 시원한 냇물과 석골마을의 얼음골 사과가 있어 다행이다. 한반도를 종으로 할퀴고 간 6호 태풍 카눈의 서슬 시퍼런 도발에도 잘 견뎌낸 의젓한 사과들이 발장게 영글어가고 있다.

1.5km 정도 도로를 따라 걸은 후 석골폭포와 석골사를 지나면 산길로 접어든다. 처음은 무난한 길이다. 폭음마저 잠시 잊을 만치 우거진 숲길이 그늘을 만들어준다. 그럼에도 결코 마음을 놓지 말고 각오를 다져야하는 출발이다. 구름의 문을 열고 올라야 하는 운문산. 그 이름값을 하는 만만찮은 길이 기다리고 있다.

역산과 팔봉재로 오르는 갈림길을 지나 첫 번째 계곡을 지나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언제쯤 끝날까 싶은 가파르고 돌부리가 발에 치이는, 좋게 말해서 자연스러워서 좋다는, 좀 징글징글한 운문산 다운 길이 쭉 이어진다. 여러 번 얇은 계곡을 건너고, 노란색 화살표를 따라 바위를 넘고, 물로 뛰어 들고픈 가혹한 유혹을 견디며 걷다보면, 그리고도 마치 물에서 방금 나온 것처럼 축축하게 젖은 몸으로 계속 걷다보면, 마침내 정구지바위에 도착한다. 안타깝게도 딱 절반을 올라왔다. 그것도 정상까지가 아니라 상운암까지 거리를 계산해서다. 이정표는 석골사 1.7km, 상운암 1.7km, 운문산 2.5km를 가리키고 있다.

시작이 반이라는데

정구지바위는 마고할멈과 정구지(부추)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오는 바위다. 시간이 넉넉하고 바위를 오를 수만 있다면 정구지를 베어다 지짐이라도 부쳐 먹고 싶은 심정이다. 이곳은 함화산으로 오르는 갈림길이기도 하다. 조금 오르다보면 얼음굴이 있는데, 소설 <동의보감>에서 허준이 스승 유의태를 해부한 굴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시작이 반이라 하였으니 반을 올랐다는 것은 다왔다는 것일 터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여전히 가파르고 바위가 걸음에 채이고 계곡 물소리가 따라온다. 운문산 1.9km. 그 이정표가 있는 곳에서야 비로소 아주 반가운 <그것>을 만날 수 있다. 그것이 이렇게나 반가울 줄이야……. 뜬금없이 출현한 인공의 구조물. 다른 산에서는 자주 만나는 계단이 처음으로 마중을 나왔다. 아마도 마지막 막으로 계곡을 건너는 길일 터이다. 잠시 후 길은 계곡에서 차츰 멀어지고, 다시 아주 반가운 모습으로 짙하고 나타난 인공의 계단을 오르고 나면 마침내 상운암에 도착한다.

샘물이 너무 시원하고 달콤하다. 마당에 서면 범봉 너머 멀찍이 역산과 사자봉과 수리봉이 보이는데 그 또한 너무 반가워서 감격스럽기까지 하다. 이제 정상이 멀지 않았다. 산죽길을 따라 30여분 정도 달밭골로 가는 삼거리를 지나 오르면 정상이다.

기다렸다는 듯 운문산은 구름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있다. 그러나 폭염 탓일까? 영남알프스의 다른 산봉우리들을 아직 구름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더러는 폭염에 감금되어 있는 듯 보인다. 고추잠자리들의 저공비행을 바라보며, 부디 저들처럼 산봉우리들도 구름과 폭염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긴 기원의 시간이 지나도 풍경은 바뀌지 않는다. 동쪽 가지산과, 남쪽 천황산과, 서쪽 역산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 가득했지만, 그럼에도 나는 참 자유롭고 좋았다. “가을빛 물든 언덕에 들꽃 따러 나온” 고추잠자리처럼 나는 듯 좋았다.

하산은 아랫재로 길을 잡는다. 내림길이라고 해도 오름길과 별반 다르지 않다. 역시 가파르고, 뽀족한 돌덩이가

걸음을 더디게 하고, 때론 미끄럽기도 하여 위태위태한 순간을 자주 맞닥뜨리는 길이다. 조심조심 아랫재까지 1시간여 정도를 하산하여야 한다. 계단을 내려가다 문득 고개를 들면 사과나무 우거진 상양마을의 고즈넉한 풍경을 볼 수 있고, 멀지 않은 가을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처럼 바람에 나풀거리는 붉은 빛 배인 억새꽃을 볼 수도 있다.

아랫재에서 상양마을까지는 다시 1시간여를 내려가야 한다.

생각보다 길고 지치는 산행이었다. 운문산은 언제나 그랬듯이 구름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렸음에도 나만 시간에 쫓기고 날씨에 불안해하다 괜한 폭염을 데불고 산행을 했나보다.

천천히 저녁 어스름이 찾아오는 상양마을. 거친 숨과 쏟아지는 땀방울을 겨우 추스르고 돌아보니 달콤한 사과향기를 품은 밤이 부지불식중에 드리운다. 바람 한줄기 불어오면 그 어둠은 마치 사과 맛 같다. 하늘에는 한입 베어 문 사과를 닮은 달이 떠오르고……. 

너도, 나도 생명

 김희자 수필가

안방 문 여는 소리에 눈을 떴다. 늦게 잠이 들어 나른한 데 일어나야만 했다. “찌익~찍!” 어머니의 기저귀 뜯는 소리다. 중풍으로 거동이 자연스럽게 못한 어머니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기저귀를 차고 주무신다.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일복으로 차려입었다. 하루의 시작이다. 해의 그림자가 길어지고 아침이 일찌감치 시작되는 유월이다.

마당으로 나가 대문을 열고 텃밭으로 갔다. 설흘산과 매봉산이 해무에 잠겨 존재가 무색하다. 해무가 마을을 삼켰다. 습기가 많은 여름이면 며칠 동안 해무가 끼이고, 길게는 한 달여간 해무에 잠기기도 한다. 이곳에서 자주 보는 풍경이다. 바다에서 연신 울리는 무적소리만 들어도 밖의 풍경이 그려진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지은 마늘 건조장과 염소 집을 허물어 남새밭으로 만들었더니 제법 땅 노릇을 한다. 수시로 씨를 뿌리고 물을 주니 상추 배추는 기본이요, 오이도 여러 개 따먹었다. 지난가을, 언니가 씨감자를 두고 가서 초봄에 심었다.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여 감자를 캐더니 알이 토실토실했다. 가지 줄기에 보라색 꽃이 피고, 키가 흰칠한 수수대 사이에 참외꽃이 피었다. 지난해 먹고 버린 참외씨가 싹을 틔운 모양이었다. 작년에 심은 머위는 점점 자리를 넓혀가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토란도 대를 바짝 올리고 있다. 토란잎에 물방울이 ‘또르르, 또르르……’ 구르며 우주를 군림한다.

한 뿌리씩 옮겨다 심은 화초와 채소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있다. 심심풀이용이라고 말하지만, 결코 그저 얻어지는 건 없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발소리를 들려주고, 흙이 마르지 않게 물을 주었다. 그냥 들여다보는 것만이 아니라 대화까지 나누었다. 생명을 품은 씨앗에 적당한 수분만 공급되면 식물은 자란다. 터만 마련되면 자라는 생명들. 자

그마한 텃밭에서 생명의 위대함을 즐는다.

언제부터인가 텃밭 옆 창고 주위를 기웃대며 나를 기다리는 고양이가 있다. 배가 훌쭉한 녀석이 안쓰러워 먹이를 주었더니 이젠 새끼까지 데리고 왔다. 어느 날에는 현관문 앞에 다소곳이 앉아서 나를 기다리곤 했다. 때때마다 먹이를 주고, 창고로 새끼 고양이가 드나들도록 틈을 만들어 주었더니 터를 잡았다. 책상 앞에 앉았다가 녀석들이 궁금하면 창고 옆으로 살금살금 갔다. 처마 아래 쌓여둔 벼짚 위에서 체온을 나누고 있는 걸 보면 나 또한 가슴이 따뜻해졌다. 생명이 꼬물꼬물하는 것만 보아도 심장이 뛰었다.

텃밭에 가면 모든 생명에게 눈길을 준다. 주인의 발소리는 다 같이 느낄 테니까. 메마른 땅에 물을 주더라도 편애할 수 없다. 배추가 시들하여 물을 주다가도 옆의 채소에 무심할 수 없다. 마른 땅에서 자라는 식물을 대할 때는 똑같이 정 주고 눈을 맞추어야 미안하지 않다. 편애하여 물을 주고 나올 때면 뒤통수가 당겨서 돌아섰다.

일머리는 없지만 보고 배운 것이 있어 몸에 밴 듯하다. 아랫집 숙모가 옥상에서 보시곤 “텃밭에서 남새 거리를 제법 짹짹하게 해 먹네.”라며 기특해했다. 어느새 옥수수 대가 내 키보다 컸다. 옥수수가 열리더니 수염이 나왔다. 호박넝쿨은 하루하루 뻗어나 건사하기조차 힘들어졌다. 적당한 물과 햇살만 있으면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옷자란 잡초를 뽑을 땐 ‘미안하다’는 소리가 절로 나왔다. 모두가 생명인데 어찌나!

때가 되면 나를 기다리던 고양이 새끼들이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께 아기들이 사라졌다고 하니 내가 관심을 보이니 어미가 새끼를 옮겨나보다고 하셨다.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 본능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낮 동안 보이지 않아 멀리

갔나 싶었는데 지나친 관심이었다.

저녁 무렵, 새끼 두 마리가 대숲에서 쪼르르 나와 밥그릇 앞으로 오더니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났다. 어미는 그 옆에서 세수하며 새끼들을 지켰다. 나는 사랑채 마루에 가만히 앉아 생명을 보며 웃었다. 어둑어둑……. 어스름이 깔리고 빗방울이 떨어졌다. 따끔따끔. 내 등을 모기가 물기 시작했다. 나는 새끼 고양이들의 출현에 안심하며 마루에서 일어났다. 내일 아침에는 녀석들에게 무얼 주지? 생각지도 않은 고민이 생겼다.

연이틀 장맛비가 내렸다. 새끼들은 어디에 있는 건지 걱정이 되었다. 밥을 챙겨 창고 쪽으로 가니 창고 처마 아래 쌓아둔 뽕짚 위에 어미와 새끼 두 마리가 누워 있었다. 비를 피해 오글오글 모여 있었다. 뽕짚이 그들의 터가 되었다.

그들의 존재를 확인한 나는 입가에 미소를 띠며 방으로 들어왔다. 이젠 텃밭으로 가는 것도 줄여야겠다. 아직도 나를 피하는 새끼들과 보호하기 위해 으르렁거리며 경계하는 어미를 위해.

다음 날 아침,

‘올여름엔 옥수수도 맛볼 수 있겠군.’ 혼잣말하며 텃밭을 서성였다. 텃밭에서 눈을 치프면 선산이 있는 골이 보이고 매봉산이 보인다. 나는 그곳에 누운 아버지께 하루를 부탁한 후 쌀을 안친다.

밥술의 취사 버튼을 누르고 마당에 나와 뒷집으로 향하니 뒷집의 강 할머니가 내려다보며 나를 불렀다.

“딸아, 얼른 와보게!”

“무슨 일 있어예?”

나는 뒷집으로 향하던 발길을 급히 돌려 텃밭 위에 있는 강 할머니 댁으로 갔다. 좁다란 골목을 종종거리며 걸어 대문으로 들어섰다. 그 집 대문을 환히 밝히던 장미꽃이 다지고 꽃술이 살찌고 있다. 그 곱던 모습은 어딜 가고 떨어져 내린 꽃잎이 비에 젖어 추하다. 내 존재는 요란하게 피었다가 절망처럼 지는 꽃이 아니기를 바라며 강 할머니 댁 현관을 들어섰다.

“아야, 저거 한 병 가져가서 신랑한테 보내거라. 밥 비벼 먹게.”

강 할머니가 가리킨 것은 마루 한 편에 있는 참기름 병이었다. 작년에 털어 말린 깨로 장날에 가서 짜 온 참기름이라도 했다.

“아이고, 이 귀한 참기름을 어찌 저에게?”

“니는 이웃의 눈이고 손인가라…….” 하시며 강 할머니는 참기름 병을 내밀었다.

진심은 통하는 법인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가슴에 묻고 봄을 보낸 강 할머니가 불쌍하여 가끔 찾아뵙고, 먹을 것을 갖다드렸더니 당신의 눈과 손이 되어준다고 고마워했다. 찐한 참기름 병을 들고 나오며 아침부터 흐뭇해졌다.

그새 해무가 그쳤다. 어머니의 진지를 차려드리고 나면 마을 어르신들을 돌보러 나가야 한다. 그들에게 눈과 귀, 손발이 되어주기 위함이다. 고향에 돌아온 나는 생명에 대한 정이 더욱 애뜻해졌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생명은 다 소중한 것. 너도, 나도 생명이기 때문이다. ♡

원목실 추천도서



케노시스: 자기비움
고성준 지음 | 규장 |
2023년 07월 12일

책소개

사람들은 많은 것을 채우면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기쁨은 자신을 비움에서부터 시작된다. 자신을 비우고 그 안을 성령님으로 채울 때 비로소 기쁨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 책은 성경이 말하는 '기쁨의 역설'을 소개한다. 자신을 비워 십자가에 오를 때 가장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가장 기뻐하셨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이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과 원함으로 가득 채워 그 뜻을 성취하셨기 때문이다. 자기비움이라는 케노시스의 능력과 아름다움, 그 기쁨의 여정에 동참하여 하늘로부터 부여지는 기쁨을 체험하기 원하는 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출처: 교보문고]

저자소개 | 고성준

수학박사와 교수가 아닌, 선교와 목회, 다음세대 사역으로 부르신 데스티니(destiny)를 따라, 이 시대의 청년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고유한 삶을 스스로 찾도록 돕고 세우는 데스티니 메이커로서 케노시스(자기비움)를 실천하고 있다. 서울대 수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국비유학생에 선발되어 미국 UC버클리에서 수학박사 학위(Ph.D)를 받았다. 대전침례신학대학교 목회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했으며, 현재 수원하나교회 담임목사이자 컴미션(Come Mission) 국제 이사, 난민을 섬기는 NGO ReHope(난민의 소망)의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다. 저서로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 《나의 데스티니 찾기》, 《카이로스 1》, 《카이로스 2》, 《빌리브갓》(아상 규장)이 있다.

[출처: 예스24]



하나님의 모략
달라스 윌라드 지음 |
윤중석 번역 | 북있는사람 |
2015년 07월 20일

책소개

이 시대의 가장 뛰어난 기독교 사상이자 달라스 윌라드의 『하나님의 모략』. 25쇄 기념 증보·재조판. 기독교 제자도의 참된 회복을 부르짖고 있다. 아울러 뒷부분에는 스터디 가이드를 담아 소그룹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책은 성경의 교훈과 세속의 문화의 의미, 현대의 과학과 학문, 그리고 영성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우리의 인생관과 신앙관의 근본적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멀게만 느끼는 이 시대에, 우리 실존의 모든 영역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설득력 있게 역설하고 있다. 저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타나는 중심적인 통찰을 현대에 맞는 신선한 감각으로 짚어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혁신적 방법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한 예수님의 분명한 가르침에 대한 이해와 순종이 우리 삶에 진정으로 중요하다는 의식을 심어주고 있다. 이처럼 저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참된 본질을 파헤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건네고, 기독교 제자도의 참뜻을 끌어안을 수 있도록 이끈다.

[출처: 교보문고]

저자소개 | 달라스 윌라드(Dallas Willard)

신학자이자 인문학자인 그는 오랫동안 우리의 일상생활을 향한 하나님의 관여하심을 대변하는 감동의 목소리 역할을 해왔다. 이미 우리 시대의 기독교 고전이 된 『하나님의 모략』(The Divine Conspiracy)을 비롯해 『마음의 혁신』(Renovation of the Heart), 『잊혀진 제자도』(The Great Omission),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Knowing Christ Today), 『영성 훈련』(The Spirit of the Disciplines), 『하나님의 음성』(Hearing God), 『하나님의 모략, 이후』(The Divine Conspiracy Continued) 등 그의 저서들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경험 방식을 영원히 바꿔 놓았다. 남캘리포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철학과 교수이자 UCLA와 콜로라도 대학교(University of Colorado)의 객원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또한 목회자로서 설교와 강연을 통해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와 영성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출처: 예스24]

고신대복음병원 의료진의 수술 기술에 감탄하다

몽골 최고 병원에서
복음병원으로 단기연수 온
니암수렌과 친조릭



몽골 의사 두 사람이 2023년 6월 10일(토)부터 약 3주간 고신대병원에서 외과 연수를 받았습니다. 니암수렌 간빌렉(Nyamsuren Ganbileg)과 친조릭 문크자갈(Chinzorig Munkhjargal)은 몽골국립의대 출신으로, 몽골국립암센터에서 근무하는 외과 의사들입니다. 수도 울란바토르에 있는 몽골국립암센터는 독보적인 암 수술 집도 횟수에다가 간이식도 100례나 기록하는 등 몽골에서 암 수술에 관한 한 최고 의료기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부산 바다를 사랑한 사나이 '남수'

이번 연수에서 간담도췌장외과 문형환 교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니암수렌은 “복강경을 이용한 다양한 췌담도 수술에 대해 지견을 넓히는 계기가 됐습니다.”라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한국에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삼성서울병원에도 다녀갔습니다. 미국 등 다양한 단기연수 프로그램도 경험했습니다. 그는 이번에 신동훈, 문형환, 조지훈 교수의 간·췌담도 수술을 세밀히 참관했습니다.

아예 작정하고 오전 8시에 시작되는 첫 수술부터 밤늦게 진행되는 마지막 시간까지 수술실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런 노력 덕분에 우리 발음과 비슷한 ‘남수’라는 애칭으로 불리울 정도로 의료진과의 친밀도가 높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주말에는 부산의 해수욕장과 관광지를 빠짐없이 둘러보았습니다. 특히 경북 경주에서는 ‘황룡사 9층 석탑이 몽골군 침략 때문에 무너졌다’는 사실을 듣고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몽골에서는 제대로 된 물놀이를 할 수 없었습니다.”라며 “개인적으로 부산과 고신대복음병원에 자주 오고 싶습니다. 매우 감사하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독교병원 외과 전통에 깊이 감명받은 ‘친조릭’

외과 서경원 교수에게 지도받은 친조릭은 위암, 대장암 수술 케이스를 무려 30차례나 참관했습니다. 그는 이미 일본과 미국 그리고 한국의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소화하고, 2018년 몽골이 편성한 ‘국가 소화기암 연구과제’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몽골 아가페병원에서 근무한 기독교사 닥터 양하가 그의 친구입니다. 닥터 양하는 지난해 하반기 고신대병원에서 먼저 연수를 받고 갔습니다.

그는 이번 연수에서 고신대병원 의료진의 수술 기술에 깊이 감탄했습니다. 특히 복강경으로 능수능란하게 수술을 집도하는 의료진을 보며 손이 정말 빠르다고 놀라워했습니다.

틈날 때마다 주전공인 위장관외과 뿐 아니라 대장암 분야의 대장항문외과 수술도 두루 참관하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대한민국 의료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뒤지던 시절, 해외로 연수를 떠나 하나라도 더 배우려 애쓰던 대한민국 1세대 의료진들의 열정이 이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부산 구도심과 감천마을, 자갈치시장을 둘러보는 등 다양한 문화를 체험했습니다.”라며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고신대복음병원 외과 역사와 장기려 박사님으로부터 시작된 기독교 의료문화에 대해 특히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친조릭은 “대한민국 근대 의료의 시작도 서양인 의료선교사로부터였습니다. 이렇게 복음병원이 천막에서 성장하고 외과외국 전통이 이어져 온 것을 보면서 비록 지금은 기독교 신자가 아닌 무교이지만, 열린 마음으로 기독교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라고 솔직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고신대병원-몽골의 지속적인 의학교육

이번 몽골 의사 연수는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의 ‘2023년 의료기관 해외 진출 및 서비스연계사업 외국 의료진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부산시와 고신대복음병원은 연수를 마친 7월 2일, 이들에게 한글과 영문으로 된 수료증도 전달했습니다.

지난 7월 7일 몽골 현지에서 몽골 국립암센터와 협약을 체결한 고신대복음병원은 하반기 중으로 몽골 국립암센터를 온라인으로 연결해 ICT 기반의 원격의료기술로 라이브(live) 수술과 집담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산에서 해외와 연결해 라이브 수술을 원격으로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첫 번째입니다. ✚





우연 같은 인도하심으로
앞길을 열어 주시다

오경승 병원장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20)

60세 환갑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내 인생을 돌아보면 학창 시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셨기에 내가 존재했다는 생각뿐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기 이 자리에 두 발 딛고 서 있게 된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 밖에 설명이 되질 않는다.

1980년 대학 입학시험에 본고사가 폐지되고 예비고사 대신 학력고사가 시작됐다. 학교 선택에서 복수 지원이 가능하게 된 첫해였다. 학력고사 2주를 앞두고 머리를 식히려 내 방 책장에 꽂혀있는 책 한 권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책이 어떻게 내 방 책장에 꽂혀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 이틀 동안 그 책만 읽었다. 고려신학교를 설립하신 한상동 목사님의 일대기를 적은 '세상 끝날까지'라는 책이었다. 인생의 중요한 관문인 학력고사를 목전에 두고 왜 그 책을 읽었을까.

사실 나는 부산대 공과대학에 합격하고 입학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한 날은 집에 온 신문을 보다가 작은 공지란에 고신대 의학부가 신설돼 후기 입학생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발견했다. 그때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다. 학력고사 준비 중에 한 목사님의 '세상 끝날까지'란 책을 읽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이때를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걸 깨닫게 됐다. 부모님께 이 모든 것을 말씀드렸다. 그리고 이미 합격한 대학을 포기하고 후기로 신설된 고신대 의학부에 입학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고신대복음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하나님께선 때맞춰 미국 장기 연수를 허락하시고 미국 앨버틴 베델교회에서 영성 훈련을 받게 하셨다. 귀국 후에는 학교와 병원이 어려울 때 교수협의회 회장을 맡게 하셔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또 복음병원의 주요 보직들을 맡겨 주시면서 연단케 하셨다.

고신대 복음병원을 섬길 수 있게 해 주신 것은 이 죄 많고 악한 나를 놓지 않으시고 늘 동행하며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바른길로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이 말씀이 여기 나를 있게 한 말씀이자 인생의 숭한 갈림길에서 의사로서의 길을 걷게 해 주신 말씀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도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리라는 다짐을 해본다. ✝



하루 시작, 환자의 수술과 진료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경외과 조혁래 교수

“의술로 사람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의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을 치료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경외과 조혁래 교수는 언제나 예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으로 진료에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 조혁래 교수는 현재 송도제일교회 집사로, 늘 진심어린 마음과 자세로 환자의 진료에 임합니다.

신경외과 의사로서의 보람

조혁래 교수는 1995년 고신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2014년부터 고신대복음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도제일교회에 출석하게 된 것도 이때입니다. 미션스쿨인 부산 해광고등학교에 다닐 때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 나간 것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조 교수는 외과를 선호하고 지망했으나 선배들의 권유로 신경외과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신경외과 의사로서 보람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경외과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뇌 수술을 하면 어렵다는 인식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 직업이 되고,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아주 좋습니다.”



일과의 시작은 하나님께 하루 주심을 감사드리는 것

조 교수는 지난해 7월 12일 연수차 출국해서 공부를 마무리하고 지난 7월 12일 입국했습니다. 1년간 연수하면서 로스엔젤레스에 있는 벨리교회(만남의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그동안 부족했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벨리교회에서 찬양 대원으로 사역했습니다. 그때 배운 것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그전에는 하루 시작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일어나면 ‘잘하자’ 정도였습니다. 연수 기간 공부는 물론, 신앙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조 교수가 지난 1년 동안 연수 가운데 배운 신앙생활이 삶과 진료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료하기 전에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환자들과의 만남이 우연이라기보다 하나님이 보내주셨기에 그들을 ‘하나님처럼 섬겨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자가 있기에 의사가 있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들을 잘 섬겨야 합니다. 한국에 돌아가서 미국에서 받은 하나님의 달란트가 환자를 위해 잘 쓰이라고 벨리교회 성도들이 가운데 불일 배지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성도들을 생각해서라도 환자들을 더 잘 돌보아야 합니다.”

환자에게 맞는 적절한 진료를 위해 기도하는 일

“의사들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의학은 통계이고 퍼즐 맞추기입니다. 환자들이 대학병원이나 3차 병원에 올 때 진료견적서를 가져오는데, 그것을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약간의 오차도 대학병원과 3차 병원에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확하게 검사하고, 진료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조교수는 ‘해당 치료가 그 환자에게 맞는지’를 항상 고민합니다. 이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인지 판단하기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뇌종양이라고 해서 꼭 수술해야하는 것은 아니기

에, 수술을 진행하기 애매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의사는 환자에게 전문가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조 교수는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치료를 하기 위해 애매할 때는 양해를 구한 뒤, 좀 더 시간을 두고 결정합니다.

조 교수에게 보람은 환자들이 100% 회복해서 귀가하는 것입니다. 회복이 안 된 채 돌아가는 환자들은 눈에 밟힐 수 밖에 없습니다.

“회복이 잘 되면 잘 되었다고 응원합니다. 회복이 안 된 분들에게는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합니다. 회복이 더디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힘내자’라고 말씀드리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은 본인도 힘들지만, 가족들의 마음도 어렵기 때문에 그 분들이 좌절하지 않고 마음을 잘 다스리도록 지지합니다”

조 교수는 환자들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 일꾼으로서 일을 잘하기 위해, 소명이 무엇인지 기도를 통해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자들을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매일 이 환자들을 돌봐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계획에 따라 만나는 것 같습니다.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게 적절하게 보내주십니다.”

열심히 배운 대로, 주신 대로 잘 쓰는 사람

“열심히 배운 대로, 주신 대로 잘 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조 교수는 ‘그의 의료지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병으로 힘들어하는 환자들을 살리는 일에 잘 쓰임 받고자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환자들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치료되고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어떤 풍파에도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간구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기도합니다. 수술하기 위해서 꼭 기도합니다.” ✝



부산지역 보건의료역사에 비취 본 장기려의료조합운동

“과거를 기억 못하는 자는 과거를 반복한다”는 격언처럼 부산지역 보건의료사에 비추어 장기려박사의 의료협동조합운동을 재조명해보았다.

부산지역에는 석기시대 이후 다수의 유적이 형성되어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사람이 살아왔지만 체계적인 보건의료에 관한 기록은 찾기가 어렵다. 17세기 경신대기근 무렵 조선의 인구는 1,000만명을 웃돌았지만 1699년(숙종 25년) 대기근 발생 시 1693년(숙종 19년)에 비해 인구가 141만 명이 감소했고, 전염병으로 25만 명이 추가로 사망하였지만 구휼과 감염관리는 전근대적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부산지역에는 1876년 개항을 통해 근대적 방역, 위생, 의료가 도입되어 초량왜관에 부립 재생의원이 창립되고 1879년 한국 최초의 전염병원인 소독소와 피병원이 영도에 설립된 후 충무동으로 이전하여 순치병원으로 개칭되었으며 철도병원, 백제병원, 나병원 및 결핵관리와 우두접종 등 개항을 통한 다양한 시도 중에 해방을 맞게 되나 곧 6·25전쟁에 휘말리게 된다.

1945년 해방이후 일제 강점기의 위생경찰은 보건행정화되고 1955년 부산의대가 설립되기도 전인 1951년에 한상동목사 및 전영창씨와 장기려박사는 영도에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의 전신인 복음진료소를 설립 후 1957년에 암남동 현위치로 이전 후 1966년에는 채규철 등과 함께 청십자의료보험 조합을 설립하고 이후 간호대와 의대가 설립되어, 백병원 동아대학교병원과 함께 부산의 4대 의과대학 병원으로 발전한다.

한편 비슷한 시대에 1945년에 나환자 관리를 위해 설립된 박애원이 1961년에 용호병원이 되었다가 1975년까지 한센병 환자를 진료하고, 1950년에 시작한 국립재활병원은 1971년에 폐쇄되었으며, 철도병원이 1972년 신축 이전 후 1984년 부산보훈병원으로 개칭되었다. 또한 부산부립병원이 1982년 부산의료원으로 발족하였고, 1931년 시작된 적십자 보건진료소는 1955년 적십자 병원으로 발전하여 1986년 운영부실로 폐원하였다.

종교계 병원으로는 1950년 메리놀병원이 설립되고 1951년에 개설된 성분도 자선병원은 2006년 성모병원으로 신축 개원하였다. 1951년 부산위생병원이 개설되어 삼육 부산병원이 되었고 1951년 설립된 침례병원은 이전 후 폐원하였고 1952년 개설된 일신기독병원은 화명, 정관병원을 추가로 개설하였다. 1950년 시작된 아동 자선 병원은 1971년 부산아동병원이 되었다가 부산대학교병원에 양도되었다. 해방 이후 보건체계 확충에 따라 방역, 가족계획, 감염병 관리 등이 개선되다가



 **고광욱** 교수
예방의학교실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비감염성 질병관리도 점차 개선되어왔다.

중교병원과 보건사업이 연계된 것들 중 전주예수병원의 개정보건사업은 구마모 토농장주의 후원으로 보건진료소를 개정하는 등 체계화되었으나 거제도 시블리 선 교사의 보건사업은 세브란스에서 진행되었다. 1970년대 각 의과대학의 지역사회 의학 시범사업들은 농특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제·개정 등과 함께 명맥과 역할이 바뀌어왔다. 원주기독병원은 지리여건상 강원대병원과 함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등 공익적 비영리 성격은 여건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발현되었기에 새로운 미래가 기대된다. 따라서 경제적 자립과 원활한 거버넌스 등은 시간의 시험 앞에 장기적 시금적이 될 것이다.

이처럼 한국전쟁 이후에 다양한 보건의료기관이 명멸하는 중 청십자 의료보험 조합은 1968년 복음병원의 분원이었던 동구 초량동 500번지 복음의원에서 장기려 박사를 이사장으로 하여 조합원 700명 회비, 60원으로 청십자 의료협동조합을 창립하였다가 1971년 압남동 복음병원으로 조합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1974년에는 부산시 보조로 가입비와 회비의 절반을 보조하여 회원수가 19,730명으로 증가하였고 부산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으로 개칭하였다. 1976년에는 사단법인 한국 청십자사회복지회를 설립하였고 1979년에는 대학병원을 포함한 18개 병의원을 요양취급기관으로 지정 승인하였다.

1977년 국가 의료보험 시작 전 한국최초의 의료보험 조합으로 감천, 남부민 진료소, 청십자 병원을 운영하다 1989년 해산하였는데 그 역사 속에 지금의 소규모 기관과 보건사업들의 오래된 미래적 성격이 역사 속에 녹아있다.

덴마크 유학을 했던 채규철씨의 제안으로 23개 교회에서 2백여 세대 720명의 조합원을 확보해주어 발족했다가 1969년 스웨덴 아동보호재단의 피 원조자 1만 3000명을 일시에 가입시키게 되고 회비도 80원으로 올렸으나 1971년 100만원, 1973년 300만원의 적자가 나서 1974년 변두리 영세민 5,000명 가입 때 부산시의 가입비와 회비 절반 보조로 첫 흑자 500만원을 기록한 이후 1975년에는 회원 2만 3000을 확보해 독립채산제 운영을 시작하였고, 1976년에는 자체건물을 갖게 되고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가입과 함께 시대적 소명을 다하고 해산되었다.

2009년 694명으로 창립된 부산돌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자활기업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은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으로 생애주기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와 요양관리사를 양성하는 등 저출산 고령화를 맞

이한 21세기의 새로운 소명을 이어나가는 청십자 의료보험 조합의 더 나은 새로운 형태의 시도로 보인다.

사회서비스 정책과 제공주체의 변화 속에서 사회적 경제 시대에 맞는 여러 가능성을 펼칠 수 있음을 요양병상이 과다한 한국사회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부산시 마을건강센터 또한 보건소에서 설치하는 동 단위 지역보건기관으로 부산시 조례에 근거하여 73개소를 전액 지방정부 재정으로 보건소 담당자(상근/비상근), 마을 간호사, 마을 활동가로 구성된 팀이 주민을 서비스의 수혜자가 아니라 지역보건활동의 주체로서의 주민과 함께 마을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활동을 수행하면서, 센터에 내소하는 주민의 건강 상담과 다양한 형태의 주민 건강모임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공공영역에서 선구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나 불안정한 인력구조와 공공기관으로서의 관료적 조직 운영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처럼 장기려 박사의 의료조합운동은 21세기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요구를 새로운 비전과 거버넌스로 해결하려는 흐름으로 이어지게 된 만큼, 모든 이의 자원과 지혜를 모아 더 새로운 발전을 기대하는 바이다. ✚



Focus View

행정인연합 교직원들 송도일대 환경정화 캠페인 참여



고신대병원 행정인연합이 5월 20일(토) 병원에서부터 송도해수욕장 일대까지 장기려로(참사랑 나눔로드)를 걸으며 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다짐하면서 정화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는 오경승 병원장을 비롯한 교직원 4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복음병원을 시작으로 송도해수욕장에 이르는 2km 구간의 환경미화 활동을 펼치며 구슬땀을 흘렸다. 환경보호 및 사회공헌 캠페인의 일환으로 기획된 이날 캠페인에서 참석자들은 화창한 날씨 속에 병원에서만 지내다가 밖에서 병원을 보면서 병원의 설립취지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고행연 직원들은 이날 행사 종료 후, 오경승 병원장에게 지난 4월 28일 병원에서 진행한 사랑의 헌혈캠페인에 동참한 90개의 헌혈증을 기부하기도 했다.

[2023.05.23.]

소아청소년과 최소윤 교수 ‘유럽소아소화기영양학회 젊은 연구자상 수상’



고신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최소윤 교수가 유럽소아소화기영양학회에서 젊은연구자상을 수상했다. 최교수는 지난 5월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55차 유럽소아소화기영양학회에서 소아청소년과 최소윤 교수가 Young Investigator Award(젊은 연구자상)을 수상했다. 최교수는 유럽소화기학회에서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들에게 자체 개발한 칼로리계산기를 적용하여 소아 영양 집중 지원 전후의 영양 공급량과 성장 변화를 비교한 연구(홍유라 교수, 정유진 교수, 하혜민 약사 공동 연구)를 포스터 발표하였으며 소아 영양집중치료와 영양집중지원팀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한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 교수는 “소아청소년과와 소아영양집중지원팀은 입원한 아이들의 충분한 영양 공급과 적절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진료와 연구에 힘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6.13.]

고신대병원의 ICT 기반 의료기술, 몽골 수도에서 700km 떨어진 지역에서도 뜨거운 관심

—몽골 아르항가이주와 비대면 진료·의사교류·병원시스템 수출에 대한 협약 체결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외국인환자 사전상담 및 사후관리 시범운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고신대병원이 몽골 현지 보건부로부터 ‘진심으로 병원과 의료진, 환자들을 대하는 병원’으로 소문이 자자하다. 행사에는 아르항가이 보건국 R 간디마 국장과 A.소색젯 전 몽골 보건부장관이 참석했다. 아르항가이주는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700km 가장 떨어져 있음에도 먼저 고신대병원의 ‘ICT기반 비대면 원격진료 시범운영사업’의 개소에 관심을 가지고 몽골 보건부를 통해 먼저 접촉해왔다. 아르항가이주 보건국 측은 이 자리에서 올해로 설립 100주년을 맞아 진행하는 기념행사에 고신대병원을 초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교류 확대를 요청해왔다. 고신대병원은 지난 3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한 ‘ICT 기반 사전상담 및 사후관리 시범운영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몽골 이외에도 카자흐스탄, 베트남 등에 한국의 첨단 ICT기술을 통해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2023.06.16.]

Focus View

개원 72주년 기념예배 및 기념식 개최



고신대병원이 개원 72주년을 맞이하여 22일(목) 병원 1동 3층 예배실에서 기념예배 및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병원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됐다. 1부 기념예배에서 고신총회 권오현 총회장은 누가복음 10장 25절~37절의 본문으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눔을 실천하고, 선한 병원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설교했다. 2부 순서에서 축사를 맡은 학교법인 고려학원 유연수 이사장은 “개원 72주년을 맞은 것을 축하하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어려운 때를 간증할 수 있는 행동하는 교직원이 되길 바란다.”고 축하 인사를 했다. 오경승 병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재진입과 더불어 병동 및 인프라 확충, 예코델타시티 스마트 헬스클러스터에 선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가겠다”며 “교직원들이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고 누구나 일하고 싶어 하는 병원을 만들어 나가자”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2023.06.22.]

‘응급실 과밀 적체현상 해소한다’ 응급중환자실(ECU) 개소



고신대병원이 응급중환자실(ECU)을 28일 개소하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 응급중환자실은 병원 3동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12병상을 갖추고 있다. 병상마다 맥박산소 측정과 동맥혈압 모니터링이 가능한 모니터를 설치해 실시간 환자 상태 확인이 가능하며 체온대인공호흡기, 체외 투석방법으로서 몸의 혈액을 빼낸 뒤 이를 순환시켜 노폐물을 빼내고 수분 및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어 몸에 다시 넣어주는 신대체요법(CRRT)장비, 고유량 비강 캐놀라 등 최신 응급장비들을 갖춰 최적의 응급 중환자 치료환경을 구축했다. 이와 함께 전실 공간으로 구성된 음압격리병실을 마련하여 감염병 질환이나 면역저하 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 응급중환자진료 전담전문의를 비롯하여 전담간호인력이 상주하여 응급중환자들이 가장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임성일 중환자실장은 “새롭게 신설된 응급중환자실을 통해 효율적이고 양질의 응급 중환자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6.28.]

동의대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대학과 상호협력 MOU 체결



고신대병원과 동의대학교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대학이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추구하는 전문인력 양성과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체제 구축과 상호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양기관은 30일(금) 오전 고신대병원 6동 제1회 의실에서 협약식을 갖고 첨단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 바이오헬스 첨단 분야 전문인재 양성 및 산학협력, 예코델타시티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공동 협력 등에 대한 제반 업무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오경승 병원장은 “지역교육의 한축을 담당하는 동의대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대학과 협력을 통해 부산지역이 대한민국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을 선도하는데 중심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동의대 정경태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대학 사업단장은 “수년간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 노하우를 가진 고신대병원의 연구성과와 협력할 때 창출될 시너지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2023.07.02.]

Focus View

몽골 국립암센터 외과의 2명 연수 성공적으로 마무리

–‘남수’라고 불리는 몽골 외과의사, 부산의료와 부산 바다에 흠뻑 빠져



고신대병원 6월10일부터 7월2일까지 약 3주 동안 몽골국립암센터 외과 의사 2인 니암수렌 간빌렉(Nyamsuren Ganbileg), 친조릭 문크자갈(Chinzorig Munkhjargal)을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3주간의 연수에서 간담도췌장외과 문형환 교수의 연수를 받은 니암수렌 의사는 복강경을 이용한 다양한 췌담도 수술에 대한 연수를 통해 지견을 넓히는 계기가 됐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외과 서경원 교수에게 지도를 받은 친조릭 의사는 위장관외과와 대장항문외과 연수를 통해 위암, 대장암 수술케이스를 30차례 참관했다. 한국이름 ‘남수’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고신대병원 의료진과 친밀도를 높였던 니암수렌 의사는 “개인적으로 부산과 고신대병원에 자주 오고 싶다며 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신대병원은 오는 7월 7일, 부산지역에서는 최초로 몽골 울란바토르 현지에서 몽골 국립암센터와 ICT 기반의 원격의료기술로 라이브 수술과 집담회 등 지속적인 의료교류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3.07.03.]

고신대병원, 몽골에서 ICT기반 비대면 원격의료 새로운 기준 제시했다

–몽골 국립암센터, 국립트라우마센터와 잇따라 원격비대면 라이브 수술교류 시작



고신대병원이 몽골 현지에서 굵직한 주요 의료기관과 회사들과 잇따라 MOU를 체결하며 광복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7월 7일 오전 울란바토르 내 몽골국립암센터 대회의실에서 의료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향후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몽골 국립암센터 MOU에 이어 몽골 국립트라우마센터와도 MOU를 체결하고, 오는 8월 신경외과 과장을 초청하여 연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고신대병원은 현지 상황과 환경에 따른 개인 맞춤형 의료기술 솔루션, VPN을 통한 원격 화상진료 서비스, 외국인환자전용 진료정보시스템(EMR) 등 첨단 ICT기술을 이용하여 차별화된 원격진료시스템을 개발, 한국 방문이 어려운 해외환자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고 치료를 위한 방한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고, 한국에서 진료 받은 환자에게 외국에서의 애프터케어서비스 경험을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환자를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 현재 이러한 시스템은 몽골현지에서 크게 주목하고 있으며, 울란바토르 현지 도로 빌보드에 광고가 게재될 만큼 관심이 뜨겁다.

[2023.07.08.]

몽골 최대 은행 칸 은행과 MOU 체결하여 사회공헌 및 의료서비스 제공 약속

–칸 은행은 몽골 전체 인구의 80% 이상이 이용하는 상업은행으로 알려져 있어



사진출처 : WIKIMEDIA COMMONS

고신대병원은 몽골을 대표하는 은행인 칸 은행(Khan Bank)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회공헌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1991년 설립된 칸 은행은 몽골 전 지역에 540여개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몽골 전체 인구의 약 80%가 이용하는 몽골 내 가장 큰 상업은행이다. 이번 협약에서 칸 은행의 계좌 보유자가 고신대병원 방문시 건강검진 20% 감면혜택과 함께 공항 픽업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칸 은행은 몽골 최대 은행 중 하나라 큰 시너지가 기대된다. 고신대병원은 몽골 현지의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업무 협약을 통해 몽골의 잠재고객 발굴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3.07.08.]

Focus View

'폐렴 적정성평가' 5회 연속 1등급 획득



고신대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12일 발표한 '폐렴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으며 5회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99.3점을 획득한 고신대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전체의료기관 평균인 87.6.6점을 크게 상회하는 점수를 기록했다. 심평원은 환자가 적절한 진료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14년부터 폐렴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총 13개 항목으로 예년에 비해 더 많은 항목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고신대병원은 산소포화도검사 실시율, 중증도 판정도구 사용률, 객담도말검사 처방률, 객담배양검사 처방률, 첫 항생제투여 전 혈액배양검사 실시율, 초기항생제 선택의 적합성 등 총 6개 항목에서 100점 만점을 획득하며 전체적으로 99.3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오경승 고신대병원 병원장은 "5회 연속 1등급에 그치지 않고 폐렴치료에 있어 최고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2023.07.13.]

이비인후과 이환호 교수, 과기부 기초연구사업: 낙상예측, 치매전단계예측 연구과제 선정



고신대병원 이비인후과 이환호 교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선정하고 지원하는 '2023년 상반기 개인기초연구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1억5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의학분야의 연구기반 확대를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선정된 과제는 "돌봄 서비스를 위한 시가반 낙상 전단계 예측 알고리즘 개발과 검증(보행인자, 운동인지 위험증후군 중심)"에 대한 연구로 1단계에서 노인 낙상의 위험을 보행분석으로 사전에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2단계에서 인지기능검사와 통합 활용하여 치매전단계인 운동인지위험증후군으로 이행까지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한다. 이환호 교수는 "이번 연구가 고령화에 따른 노인환자 증가 및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수년간 수집·분석된 보행데이터를 바탕으로 낙상을 사전에 감지하고 예측·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알고리즘 개발에 수년 전부터 독보적인 역량을 보이고 있다.

[2023.07.18.]

(주)넥스인테크놀로지와 스마트헬스케어 구축 협약(MOU) 체결



고신대병원과 (주)넥스인테크놀로지가 7월 26일 병원 혁신형 의사과학자 회의실에서 '스마트 헬스케어 구축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의 기술 경쟁력 및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MOU는 첨단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 정보 교환 및 공동 연구, 양측 전문 분야 간 기술 교류 및 의료 인공지능 분야 신기술 개척, 부산에코델타시티 스마트 헬스케어 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공동 협력, 사업화를 위한 제반 업무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의료선교사가 활동하고 있는 고신대병원의 해외의료봉사 활동을 기반으로 IT기반의 융합형 해외의료봉사의 모델을 함께 만들기로 했다. 이강대 연구부원장은 "혁신적인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 처리 노하우를 보유한 (주)넥스인테크놀로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기쁘다"며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인 양질의 해외 의료데이터를 확보하여 해외에서의 비대면 원격의료와 치료의 편의성, 정확성을 확보하여 대한민국 의료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7.28.]

Focus View

경남김해교육지원청과 다문화 가족 의료지원 업무협약 체결



고신대병원이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과 다문화 학생 및 가족 의료보건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8월 4일(금) 오전 고신대병원 장기려기념암센터 1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협약은 김해지역이 다문화교육 특구를 추진함에 따라 중도입국 및 외국인 가정 학생 건강보험 미등록으로 인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문화 학생 및 가족의 의료보건 지원으로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고신대병원은 10년 넘게 김해지역 다문화 가정 의료봉사활동을 정례적으로 실시하며 김해지역 다문화 가정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일반적인 의료봉사활동을 넘어 스마트 헬스케어 디바이스와 포터블 엑스레이 장비를 활용한 실질적인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에 노력한 바 있다. 고신대병원 오경승 병원장은 “의료진들의 자발적인 봉사하는 마음이 오늘 이렇게 김해교육지원청과 협약을 맺게 한 마중물이 된 것 같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다문화 가족들이 한국 정착을 지원하는 데 보탬이 되는 병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2023.08.04.]

역대급 규모의 의료봉사팀 아프리카 파견한다

-오경승 병원장 및 주임교수급 대거 참가



고신대병원이 남아공 지역으로 역대급 규모의 해외의료봉사팀을 파견한다. 8월 10일(목)부터 19일(토)까지 9박 10일의 일정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지역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2019년까지 매년 꾸준히 의료봉사를 펼쳤던 지역이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4년간 진행하지 못했다가 이번에 대대적인 의료봉사팀을 꾸리게 됐다. 이번 의료봉사팀에는 오경승 병원장도 동행하게 된다. 오 병원장은 “이번에 함께 동참하는 의료인들이 의료봉사를 통해 초대병원장 장기려 박사님의 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남아공 의료봉사팀 17인 전원은 하계휴가를 반납하고 자비량으로 참가하게 된다. 오경승 병원장 뿐 아니라 호흡기내과 옥철호 교수, 알레르기내과 김희규 교수, 혈액종양내과 이은미 교수, 산부인과 윤향구 교수, 유방외과 김구상 교수 등 주임교수급이 대거 동행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해 힘들어하는 현지인들에게 큰 힘이 될 전망이다. 고신대병원은 앞으로 추석연휴와 연말에도 대규모 해외의료봉사팀을 파견할 계획이다.

[2023.08.08.]

환자안전주간 박하페스티벌 개최



고신대병원은 8월 22일(화)부터 25일(금)까지 의료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 대국민 캠페인 ‘박하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박하 페스티벌은 한국의료질향상학회가 대한병원협회와 공동주관하며, 전국 300여개 병원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우리 모두 함께하는 의료의 질과 안전’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다양한 활동이 전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 등장한 ‘박하’의 의미는 바로 ‘안전’이다. 붉은색(피 · 경고)의 보색인 민트색에 안전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민트의 우리말인 박하를 행사명으로 사용했다. 병원 중앙로비에 페스티벌 존과 홍보부스를 만들어 행사기간 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에게 기념촬영과 박하사탕,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고 있다. 고신대병원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환자안전 캠페인을 기획해 내 · 외부적으로 모두가 어울릴 수 있도록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운형 고신대병원 QPS실장은 “의료 질 관리와 환자 안전 분야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8.22.]

혈액종양내과 신성훈 교수, 암성통증 관리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참여



암환자의 비율이 입원환자의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혈액종양내과 의사들이 암 환자의 통증을 관리하고 조절을 돕는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에 스타트업 기업과 힘을 합쳤다. 이번 개발 프로젝트에는 대한항암요법연구회 완화의료분과 신성훈 위원장(고신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스타트업 기업 올라운드닥터스, 비씨월드헬스케어가 기업으로 참여했으며 지난 23일 협약식을 체결했다. 혈액종양내과 신성훈 교수는 “암환자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한 통증 변화와 마약성 진통제 복용 데이터를 모니터링해 투약 중인 진통제의 약동학 데이터 기반의 분석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주안점이고, 이를 통해 적절한 맞춤 투여 용량과 시점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였다.”고 말하며 “암성통증 조절에 대한 의료진과 암환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8.24.]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실시



고신대병원이 8월 28일(월)부터 30일(수)까지 병원 1동 3층 예배실에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진행한다. 고신대병원은 지난 1992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두 차례씩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하여 말기암 환자를 케어하기 위한 호스피스 봉사자 육성에 힘썼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동안 진행되지 못했다가 지난 3월, 56기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약 4년 만에 재개했다. 이번 57기 교육에는 40여명의 신청자가 몰려 예년의 규모를 회복했다. 고신대병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는 심평원에서 시행하는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 사업에도 선정돼 일반 병동이나 외래에서 말기암 혹은 말기 만성폐쇄성폐질환, 말기 만성간경화 환자들이 의료진의 진료를 받으면서 신체 증상관리 자문 등을 받도록 하고 있다. 지난 8월 7일부터는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은 15명의 고신대병원 및 고신대 의과대학 교수가 강사로 참여하여 호스피스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2023.08.29.]

18년 전 외국인 근로자에서 몽골 최고 의사된 다과줄, 고신대병원에서 연수받아



특별한 사연을 가진 몽골인 의사가 한국을 찾았다. 몽골 국립트라우마센터 신경외과 센터장을 맡고 있는 다과줄 라바수렌이 그 주인공이다. 올해 41세인 그는 지난 8월 5일에 입국하여 7일부터 고신대병원에서 신경외과 연수를 받고 있다. 그는 다른 몽골의사와 달리 한국과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다. 20대 초반이던 지난 2005년, 한국에 돈을 벌기위해 아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로 3년 가까이 체류한 경험이 있다. 그는 한국에서 다양한 일을 하고 몽골로 돌아가 10년 만에 의과대학을 졸업하여 탄탄한 경력을 쌓은 후 현재 몽골 국립트라우마센터의 신경외과 책임 과장으로 일하고 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신경외과 교수들의 수술과 시술을 참관한 닥터 다과줄은 “한국의 우수한 의료 인프라와 체계적인 시스템은 올 때 마다 몽골 의료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 제시해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후배의사들이 이러한 선진의료시스템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며 1주일만의 경험에도 몽골의료에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닥터 다과줄은 오는 9월 3일 몽골로 귀국하게 된다.

[2023.08.30.]



외래진료시간표

(2023년 9월 현재)

● 외래진료 ● 클리닉 ● 시술 ● 연구 ● 내시경

진료과	교수명	월		화		수		목		금		전 문 진 료 분 야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간내과 990-6101	이상욱	●				●		●				간, 담도, 췌장 질환 (간암, 간경화, 급/만성 간염)
	윤병철		●	●	●			●		●		간, 담도, 췌장 질환 (간암, 간경화, 급/만성 간염), 식도정맥류
	서광일			●		●	●	●	●			간염,지방간, 간경화, 간암, 간이식, 간부전
	박현준	●		●	●				●	●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암, 간부전, 간이식
	이정욱	●	●	●	●	●		●	●	●	●	췌장·담도계 질환(담석증, 담낭염, 담관염, 담관암, 급·만성 췌장염, 췌장암, 췌장낭종)
	김윤아		●		●		●		●		●	간내과 일반진료
심장내과 990-6105	차태준	●	●	●	●				●	●		고혈압, 협심증, 심부전, 부정맥, 임상심장전기생리학, 침습적심장학, 세포심장학
	허정호	●			●	●		●				심혈관중재시술, 심부전 심근경색, 협심증, 고혈압, 심장재활, 부정맥
	김현수		●	●		●			●			홍통, 호흡곤란(협심증, 심근경색), 대동맥 및 혈관질환, 심부전, 고혈압
	임성일	●				●	●	●				부정맥, 급사 및 실신, 허혈성 심질환, 심부전
	김봉준	해외연수										심부전, 협심증, 고혈압
	김수진			●			●			●		심장초음파, 심장판막질환, 고혈압, 심부전, 협심증, 여성심장
내분비내과 990-6102	배수현										●	심장내과 일반진료
	권수경		●	●				●	●			내분비(당뇨, 갑상선, 호르몬)질환
	김부경	●			●	●	●			●		당뇨병, 비만, 골다공증, 갑상선암
	박태훈	●			●					●		갑상선, 내분비(당뇨)질환
혈액종양내과 990-6107												
	신성훈						●		●	●		두경부암, 폐암, 대장암, 직장암 등의 항암 약물치료 *급 오전진료는 신환, 낮병동, 호스피스 상담
	이호섭		●	●	●			●				다발골수종, 악성림프종, 급성백혈병, 만성백혈병,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재생불량성빈혈 등 혈액암 및 혈액질환
	이은미		●			●		●			●	위암, 대장암, 유방암, 담낭암, 췌장암, 난소암, 자궁암 등의 항암 약물치료
	김다정	●				●			●	●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재생불량성빈혈 등의 혈액암 및 혈액질환
	정현엽	●		●			●				●	혈액종양내과 일반진료
소화기내과 990-6103												
	박선자	●	●	●	●	●	●	●	●	●	●	궤양, 물혹,암,염증, 신경
	박무인	●	●	●	●	●	●	●	●	●	●	궤양, 물혹, 암, 염증, 신경, 기능성위장관질환, 소화기암
	문 원	●	●	●	●	●	●	●	●	●	●	크론병, 궤양성대장염클리닉, 소화기질환
	김성은	●	●	●	●	●	●	●	●	●	●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관련 질환, 위암, 식도암, 소화기질환
	김재현		●			●					●	대장암 클리닉, 유전성 대장 폴립 증후군, 대장 폴립 절제술, 소화기질환
	정경원	해외연수										치료 내시경 (조기 식도암, 조기 위/대장암), 아컬라지아 (POEM), 위암, 식도암, 용종, 기능성 소화기질환
	손민영	●	●	●	●	●	●	●	●	●	●	소화기 일반질환
호흡기내과 990-6104												
	정만홍				●					●		폐암, 천식, 기관지염, 결핵, 폐렴, 만성폐쇄성폐질환
	장태원	●				●	●	●				폐암, 천식, 만성기관지염, 결핵, 폐렴, 만성폐쇄성폐질환
	옥철호			●			●		●			폐암, 만성폐쇄성 폐질환
	김지원		●								●	폐암, 결핵, 간질성폐질환, 폐렴

※ 상기 진료시간표는 진료과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진료예약은 990-690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진료과	교수명	월		화		수		목		금		전 문 진 료 분 야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신장내과 990-6108	임 학	●				●	●	●				신장질환, 사구체질환, 신증후군, 만성신부전(만성콩팥병),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생체이식, 혈액형불일치이식, 뇌사이식)
	정연순			●	●			●	●			다낭콩팥병클리닉, 신장이식, 만성콩팥병, 급성신손상, 당뇨병성콩팥병, 사구체신염 (혈뇨, 단백뇨), 요로감염 ※다낭콩팥병클리닉 진료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신호식	●	●			●	●		●	●		신장이식, 투석, 신부전, 사구체신염, 당뇨병성콩팥병, 노인성 콩팥질환, 요로감염 ※신장이식클리닉: 매주 금요일 오전※
	김예나		●	●	●					●		신장질환
	박병화										●	신장내과 일반진료
방사선종양학과 990-6395	박경란	●					●	●	●			유방암, 간담췌암, 뇌종양, 방사선수술
	마선영		●			●	●			●		유방암, 부인과종양, 하부소화기종양
	최지훈			●	●	●			●			두경부암, 폐암, 흉선종, 식도암, 특수방사선치료, 고식적방사선치료
	유제상	●	●		●					●	●	비뇨기암, 림프종, 혈액암, 피부암, 근골격계종양, 특수방사선치료, 고식적방사선치료
마취통증의학과 990-6267	류시정	●						●				통증관리
	김두식			●					●			통증기전연구, 만성통증치료, 암성통증관리
	강동희				●					●	●	급만성통증의학, 암성통증, 부위마취, 대사비만수술마취, 신체감정
	김지옥					●	●					통증관리, 중환자의학, 뇌신경마취, 산과마취
성형외과 990-6131	박진형		●			●	●					유방재건, 미세수술, 미용
	이형석	●	●						●			당뇨발, 욕창, 피부암, 눈성형, 두경부재건, 소아성형
	김홍일	해외연수										수부질환, 수부외상, 선천기형, 두개안면외상, 피부종양, 흉터성형
	김윤수			●	●					●		유방 재건 및 유방 성형, 체형 성형(비만), 흉터 성형, 안면 외상
재활의학과 990-6156	김기찬	●		●					●			뇌졸중, 노인재활, 골다공증, 암재활
	정호중		●			●	●			●		척추손상 재활, 경직치료 재활
	심영주		●			●	●	●				소아재활, 림프부종 재활, 근골격계 질환, 암재활
	이재현	●		●	●				●		●	근골격계 및 스포츠 재활, 척추 및 관절질환, 어깨통증, 허리통증, 목통증, 외상성 뇌손상, 삼킴 장애, 호흡재활, 초음파유도 중재시술, 신경근골격 초음파, 척추중재시술
정형외과 990-6130	손정환										●	슬관절부
	권영호	●					●					수부, 주관절, 흉곽출구증후군
	정소학			●				●				근골격계 종양, 고관절, 대퇴부
	김창수		●			●				●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등의 척추질환, 척추종양, 척추측만증을 포함한 척추기형, 척추외상
	김지연	●					●				●	족부(발, 발목)질환 및 스포츠손상, 당뇨병성 족부질환
안과 990-6140	이상준		●		●			●				망막, 포도막, 백내장, 안외상, 눈물길 유리체망막클리닉, 포도막염클리닉
	이승욱	●				●			●			녹내장, 백내장, 각결막질환
	김창주	해외연수										사시, 소아안과, 신경안과, 안종양
	임재완			●			●			●		망막, 포도막, 유리체, 백내장, 녹내장
	임준현										●	망막, 포도막, 유리체, 백내장



외래진료시간표 (2023년 9월 현재)

● 외래진료 ● 클리닉 ● 시술 ● 연구 ● 내시경

[illegible]

※ 상기 진료시간표는 진료과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진료예약은 990-690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illegible]

진료과	교수명	월		화		수		목		금		전 문 진 료 분 야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소아청소년과 990-6123	홍유라				●			●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예방접종
	정유진						●			●		미숙아 및 신생아 질환 (신생아 발달, 신생아 황달, 저체중 출생아, 자궁내 성장 지연, 과체중아, 무호흡,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신생아 일과성 빠른 호흡, 태변출인 증후군, 신생아 지속성 폐동맥 고혈압, 기관지폐형성 이상, 신생아 감염, 신생아 dimple, 배꼽 혹(아궁), 영유아건강검진, 예방접종)
	이정현		●				●		●			성장클리닉 (성조숙증, 저신장), 내분비대사질환 (고신장, 사춘기 지연, 갑상선질환, 당뇨병, 저혈당, 비만, 갈증 및 인 대사 장애, 기타 영양 장애)
	연규민	●				●					●	소아신경질환 (뇌전증, 편두통, 발달지연, 뇌염, 뇌수막염, 신경근질환, 열성경련)
	공섬김	●			●			●		●		소아혈액종양질환 (백혈병, 림프종, 고형종양, 혈관종, 골수부전, 조혈모세포이식, 빈혈, 혈우병, 자반증, 출혈성질환)
	정민영		●	●					●			소아 알레르기질환(식품알레르기, 경구면역치료, 중증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천식/비염 면역치료, 약물알레르기, 만성두드러기), 소아 호흡기질환(만성기침, 폐렴, 간질성폐질환, 가정용 인공호흡기 관리 등), 중환자의학
	최소윤			●		●	●			●		소아소화기질환(위장관, 간담췌장), 소아염증성장질환(크론병, 궤양성대장염), 영양 질환, 비만, 저체중, 소아위장관내시경
신경외과 990-6124	조혁래	●	●		●							뇌종양, 두개저용양, 삼차신경통, 안면경련
	박정현			●	●			●				뇌혈관 중재적 수술치료,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박민철			●	●				●			신경외과 척추질환, 척추 및 두부 외상
	김도연	●	●				●					경추 및 요추 디스크, 협착증, 전방전위증, 척추종양, 척추변형, 두부외상, 척추외상
	심용우					●	●			●	●	뇌혈관 질환, 뇌종양, 뇌혈관중재치료,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두부외상
피부과 990-6146	장민수	●	●			●	●					여드름/주사, 건선, 피부미용, 손·발톱색소질환
	서기석			●						●	●	피부암, 무좀 및 진균성질환, 모발질환, 수포성질환 및 결체조직질환, 혈관질환
	박종빈	해외연수										피부종양, 피부암, 알레르기피부질환
	권도익	●			●			●	●			두드러기, 아토피 피부염, 레이저/색소, 켈로이드/흉터
일반내과 990-6359	남한준	●	●		●	●		●			●	일반내과, 일반진료
호스피스완화의료과 990-6359	정원길	●		●		●		●		●		호스피스 완화의료
류마티스내과 990-6154	김근태	해외연수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척추염, 건선관절염, 전신홍반루푸스, 통풍, 골관절염, 섬유근통, 혈관염, 배체트병, 관절초음파클리닉
	김윤경	●		●	●		●	●		●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루푸스, 통풍, 퇴행성 관절염, 섬유근육통, 혈관염, 배체트병, 관절초음파 클리닉
감염내과 990-6157	전민지		●			●						감염내과 일반진료
	진 술	분만휴가										감염내과 일반진료
치과 990-5150	김희진	●	●	●	●	●	●	●	●	●	●	치과보존과 일반질환
	서고은	●				●	●			●	●	구강악안면외과 일반질환(구강내 종양,감염,외상,임플란트,매복치,턱관절 질환 및 기타 치과 질환)
	강은숙			●	●	●				●	●	치과보철과 일반질환
	김민경	●	●				●	●	●			치주과 일반진료
직업환경의학과 990-6742	김정원		●									신경독성학, 직업성 알레르기 질환 (천식, 피부), 직업성 암, 직업병 산재보상, 업무적합성 평가
	정지현			●	●					●	●	직업성질환, 특수건강진단, 업무관련성평가, 업무적합성평가
	배현숙	●	●					●	●			직업성질환, 특수건강진단, 업무관련성평가, 업무적합성평가
	오현철	●			●							근골격계 산업재해 특별진찰,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관련성평가

KOSin

사랑in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당신은 사랑in입니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 교직원들은故장기려 박사님의 애민정신을 이어받아 국내 · 외 경제적으로 빈곤한 환우들의 치료에 힘쓰고, 의료 활동 이외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에게 섬김의 자세로 다가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일, 저희들의 기쁨이며 소망입니다.





초대병원장 **장기려** 박사

빈부귀천을 넘어 '생명'은
오직 그 자체로 '소중'하다는 **믿음**
사랑은 베풀수록 커진다는 **진리**

이 '믿음'과 '진리'는
7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숨 쉬고 있습니다

